미술작품을 통하여 본 치과의학

금성 치과의원
김 규 문

이 作品은「奇体한 名醫 難病療治」라고하는 이름이 붙은 日本의 풍속화이다.

이 그림은 1853年 國芳이라고하는 作家의 作品으로 西丸御簾을 諷刺하고 있다.

中央의 女醫者는 御本丸 上臈姉小路이다.

齒痛에 아픔을 두려워 하는것은 퍽이나 괴로운 것이다.

그림속에는 名醫와 두제자중 한사람은 비교적 잘 다듬어 졌지만 대단히 큰 감자로 치아를 빼고 있으며 齒黑의 老婆앞에는 入齒(틀니)가 세개 있어 어느것이던지 마추워보고 끼울 준비를 하고 있다.

이 당시의 틀니는 木床義齒라고 하여 나무로 만들거나 구치부에 銅으로 못을 박아 사용했다.

崔鍾煥치과기공소
서울·종로구 숭인동 1081
전 화 93-6671